문 대통령 "2차 접종 70% 조기 달성"

연령·대상 확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K-방역 모델 창출해 세계 모범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에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한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접종 속도는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 및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감을 높여 추석 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고향을 찾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저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BTS와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룹 BTS 멤버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선거인단 212만…초반 압승 구도

이재명, '매직넘버' 47만…이낙연, 과반 저지 안간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초반 레이스에서 '과반 연승'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선에 직행하기 위해 추가로 얻어야 할 '매직넘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모집이 마감되는 3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경선 선거인단 수는 오전 11시 기준 총 212만 8,891명이다.

지난 1일 시작한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이날 오후 9시에 종료되는 만큼 총 선거인단 수는 212만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2차로 모집된 총 선거인단 수가 186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3차 모집에서 새로 모집된 선거인단은 26만명 가량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당초 당 내부적으로는 선거인단 규모가 2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 대선 경선(약 214만명) 때 보다도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선 초반 레이스가 이 지사 압승 구도로 흐르는 점도 저조한 선거인단 모집 성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금까지 치러진 지역 경선과 1차 슈퍼위크 누적 투표율이 74%대인 것을 감안해 최종 투표율을 일단 약 70%로 가정하면 투표인원 150만명의 절반인 75만표가 본선 직행 티켓인 과반에 해당한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51%인 28만표를 확보한 만큼, 결선 없는 경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하는 '매직넘버'는 47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내달 3일 예정된 2차 슈퍼위크에서 조기에 끝내기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차 슈퍼위크(선거인단 약 50만명) 규모와 이보다 앞서 열리는 호남(약 20만명)과 제주(약 1만명), 부산·울산·경남(약 6만명), 인천(약 2만명) 경선 선거인단 규모는 약 80만명이다.

여기에 투표율 70%를 적용한 투표인원(56만명)의 과반을 얻어도 28만명 확보에 그친다. 본선 직행을 위해선 19만표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로선 표 분산을 최소화하며 '몰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 배수진에 힘입어 호남 경선 대승으로 이 지사의 결선행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3년간 청년일자리 3만개 창출"

이재용, 첫 공식 대외활동

김총리 "과감한 결단 감사"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방문, 간담회를 마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의 공식적인 대외활동은 이번이 출소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논란 등을 고려해 이날 행사에서 공개 발언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고 말했다고 삼성측이 전했다.

삼성그룹은 간담회에서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업준비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삼성이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생에게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삼성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청년창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을 돕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 기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 고용인원을 통틀어 연 1만개, 3년간 총 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 7일 KT에 이어 두 번째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취임 직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으로,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삼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발표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정말 국민의 기업 삼성다운 과감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삼성은 가치 있는 사회공헌을 하고, 기업들은 삼성이라는 최고의 기업에서 교육된 인재를 채용하고, 우리 사회는 청년 일자리가 늘고, 국가경쟁력은 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장 후보 최재해…첫 내부 출신

청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최재해 후보자는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등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총무처, 내무부, 서울시, 인천시에서 근무한 뒤 1989년부터 30년간 감사원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감사원 내부 출신을 지명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고, 이에 걸맞은 인사를 지명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향후 인사청문회 및 인준안 표결 등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새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대선을 거쳐 출범하는 새 정권에서도 '임기 보장'에 따라 감사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